

## 카자흐스탄 자원산업의 투자장벽과 우리의 대응전략 : 신자원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유영근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러시아학과 석사과정)

### 목 차

- I. 서론
- II. 신자원민족주의의 등장
  - 1. 신자원민족주의 등장 배경
  - 2. 신자원민족주의의 특징과 영향
  - 3. 카자흐스탄의 신자원민족주의
- III. 카자흐스탄 자원산업정책과 투자장벽
  - 1. 카자흐스탄의 자원산업정책
  - 2. 카자흐스탄 자원산업의 투자장벽
- IV. 한국의 카자흐스탄 자원산업 진출전략
  - 1.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동향
  - 2. 진출전략
- V. 결론

### I. 서론

1970년대 오일쇼크의 주요 원인이었던 자원민족주의(resource nationalism)가 최근 다시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자원민족주의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 독립국들을 중심으로 1960~1970년대에 크게 확산되었다가 개방화 진전, OPEC 회원국간의 결속력 약화, 친미성향의 정권 확산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1980~1990년대에는 다소 쇠퇴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신흥개발도상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 이슬람권의 반미성향 확대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원자재시장이 소비자에서 공급자 우위로 전환되면서 자원민족주의가 빠르게 부활하고 있다.<sup>1)</sup> 신자원민족주의의 등장으로 원자재 시장의 공급불안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해외자원 확보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제 2의 중동이라 불릴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중국인도 등과 같은 거대 신흥시장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국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 중앙아시아에 대한 체계적인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국가차원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 특히, 카자흐스탄과의 자원협력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요즘, 구체적인 자원협력의 성과들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한국정부는 카자흐스탄을 에너지 자원 개발부문에 있어서 전

1) Lord's Cricket Ground, "The Rise of Resource Nationalism", 1 May 2007

략적인 진출지역으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카자흐스탄과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 아직 탐사되지 않은 에너지자원들은 주로 카자흐스탄의 서쪽에 있는 카스피해에 매장되어 있으며, 현재 카스피해 석유·가스 매장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은 자국내 미탐사된 석유·가스 매장지들을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력과 자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외국의 거대기업들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공동 개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카자흐스탄의 공동개발사업에 참여하기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지하자원이용법과 같은 제도개정 등을 통하여 정부가 자원을 통제하려는 신자원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통제의 움직임은 다음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첫째, 육상유전의 경우에는 카자흐스탄의 국영석유회사인 카즈므나이가즈가 주도하고 있고, 해상유전의 경우에는 기존의 대형유전을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둘째, 2007년 1월 신규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권 확보 후 2년간은 전매를 금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지하자원법이 개정되었다. 셋째, 카자흐스탄 정부는 Kashagan 유전에 대한 정부수익 분배율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Kashagan 유전개발 지연으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약 1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동 유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수익 분배율을 기존 8.33%에서 더욱 증대시켜 줄 것을 Agip-KCO 측에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8월 Agip-KCO 측이 카자흐스탄 환경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동 유전개발을 3개월간 중지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실질적인 이유는 Agip-KCO 측에 대한 자신들의 지분 증대 요구에 있다.<sup>2)</sup>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러시아를 bench marking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신자원민족주의적인 경향의 정책들이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연구자료는 카자흐스탄의 투자장벽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정부 및 기업들이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II. 신자원민족주의의 등장

### 1. 신자원민족주의 등장의 배경

신자원민족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이 있다. 먼저 경제적인 면을 살펴보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유가 분배 몫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산유국의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산유국들은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IOC<sup>3)</sup>들의 자원수탈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써 경제개발을 위해 막대한 재정수입이 필요한 산유국들은 사회적 비용지출 및 경제개발에 요구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IOC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sup>4)</sup> 또한 소비국들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참여시 단순한 상업성이나 경제성을 넘어선 국가 전략적 접근은 과도한 경쟁을 야기하는데, 이처럼 한정된 석유자원을 두고 주요 소비국들의 자원확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산유국들은 국제에너지시장에서 자국의 영향력과 위상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다음으로 정치적인 면을 살펴보면 산유국 정부의 국내문제 회피를 들 수 있다. 주요 산유국들은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패 및 무능력으로 인해 고유가로 인한 재정수입을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유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IOC를 비롯한 해

2) 에너지 경제연구원,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진출 전략 연구(II), 2007. 12

3) IOC: International Oil Company

4) Energy Intelligence, "The Multiple Faces of Resources Nationalism",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February 5, 2007, p.5

의 투자자들에게 돌림으로써 국민의 불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sup>5)</sup> 러시아의 경우에는 “자원이 러시아의 국제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재건하는데 기여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sup>6)</sup>는 의도를 가지고 자원의 국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의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중단(2006년 1월)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러시아는 상업적 목적 이외에 석유 및 가스자원을 통하여 유럽 및 주변 국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 2. 신자원민족주의의 특징과 영향

최근 고유가와 함께 대두된 신자원민족주의는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측면보다는 자원보유국들이 부존자원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sup>7)</sup>하여 자국의 수익 배분 몫을 증대시키려는 실용적 측면이 강한데, 자원보유국들은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영에너지기업의 프로젝트 참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원보유국들은 자산의 몰수나 국가귀속이라는 전면적인 국유화 조치보다는 계약형태 변경 및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부존자원을 통제하고 정부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독특한 점은 신자원민족주의는 에너지자원 생산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입 및 소비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 수입국에서의 신자원민족주의는 자국 국영석유기업의 세력을 해외로 확장하고 자국 시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자원민족주의는 IOC의 석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여 석유생산부문에 대한 투자 부진을 자초했고, 이로 인해 공급이 감소하여 고유가를 장기화하는 요인이 되었다. 고유가가 장기간 지속되거나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에는 성장저하, 물가상승 등 실물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sup>8)</sup> 또한 신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석유 및 가스자원에 대한 지배력이 IOC우위에서 NOC<sup>9)</sup>우위로 넘어가는 변화를 이끌고 왔다.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별개의 규칙아래에서 운영되고 있는 NOC는 정부 대 정부 또는 NOC 대 NOC의 공생관계를 통해 협상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이점을 바탕으로 IOC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sup>10)</sup> 이와 같은 신자원민족주의 경향은 고유가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원유 생산능력이 부족한 가운데 세계석유수요가 증가하고 소비국들의 에너지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어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원보유국들은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다수의 자원보유국이 협력체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에 발족한 ‘가스수출국 포럼’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 비회원국들의 높은 공급탄력성 등으로 인해 OPEC과 같이 카르텔로 발전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개별 회원국 간 협약을 통해 소비국에 대응할 수 있다.<sup>11)</sup>

## 3. 카자흐스탄의 신자원민족주의

최근 대두하고 있는 신자원민족주의는 인도와 중국 등 신흥개발도상국의 석유수요 급증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되고 유전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자흐스탄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 10월에는 계약조건에 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권리가 강화되었고, 12월에는 국영석유기업의 민간석유기업에 대한 지분이 확대되는 등 신자원민족주의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sup>12)</sup> 또한 카자흐스탄지역 내 석유·가스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현

5) Energy Intelligence, *ibid.*, February 5, 2007, p.5

6) 러시아 푸틴대통령의 발언(2003년 2월), The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The New Oil Nationalism", Arab Oil & Gas, 16 April 2007, p.3

7) 카자흐스탄은 자국 사업자가 정부와 계약한 유전개발권을 2년간 다른 기업에 전매하는 것을 금지함

8)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KEEI ISSUE PAPER, 에너지경제연구원, Vol.6, No.6, 2007.8.31

9) NOC: National Oil Company

10) Pete Stark, "The Winds of Change: Resource Nationalism Shifts the Balance of Power to National Oil Companies", JPT Online, January 2007

11) 서정규, “가스수출국포럼 동향 및 가스 카르텔화 가능성”, KEEI ISSUE PAPER, 에너지경제연구원, Vol.1, No.5, 2007.8.16

제의 권력구조와 비즈니스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카자흐스탄 사회는 정책결정과 경제행위에 있어 공식기관, 중앙정치세력, 지역세력 등 비공식 네트워크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복잡한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비공식적 네트워크는 크게 부족이나 씨족을 중심으로 한 혈통관계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엘리트 집단, 경제적 부호 등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비공식 네트워크는 일종의 보험이라는 의식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영향력이 강화된 측면도 있다. 석유·가스산업 내에는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된 파벌들(Juzes)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 파벌들의 대표자들은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의 장관 등을 역임하고 있다. 유명한 광구의 경우에는 대통령, 장관 등 요직 인사와 결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sup>13)</sup>

### III. 카자흐스탄 자원산업정책과 투자장벽

#### 1. 카자흐스탄의 자원산업정책

카자흐스탄은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하여 구소련 시절 미개발 상태로 남아있던 카스피해 주변의 석유자원 및 가스자원을 개발하여 수출하는 전략을 추진하였으나, 에너지개발에 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에너지개발을 위한 외국인의 투자는 꼭 필요한 요소였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지속적으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환경을 정비해왔다.<sup>14)</sup>

카자흐스탄의 석유자원 및 가스자원개발에 관한 법으로는 지하자원법(1996년 제정, 2007년 개정), 외국인투자법(1994년 개정), 조세법(1995년), 석유법(1995년 제정, 1999년 개정) 등이 있다. 해외 석유기업들과의 유전 및 가스전의 탐사, 개발 및 생산과 관련된 주요 계약 방식으로는 생산물분배계약(PSA), 합작계약, 서비스계약 등이 있다.<sup>15)</sup> 생산물분배계약(PSA)이 가장 많이 이용된 형태였으며, 2001년부터 카자흐스탄은 기존 생산물분배계약방식을 소유국 70%, 개발회사 30%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정책과 관련한 계약조건들을 수정하여 이전과는 달리 적용하였는데, 이에 의하여 탱기즈 유전개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원유증산 계획을 둘러싸고 투자에 필요한 35억 달러의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외국자본측(예전처럼 석유판매 수입에서 충당할 것을 주장함)과 카자흐스탄 정부(예전과는 달리 외부로부터 차입할 것을 주장함)가 서로 대립중이다.

고유가가 지속되어 에너지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이 꾸준히 증가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관련법을 자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2004년 1월에는 국제유가에 따라 누진세가 적용되는 원유수출세를 도입하였고, 2005년에는 카자흐스탄의 국영석유가스기업인 카즈프나이가스가 향후의 모든 생산물분배계약에서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제사항을 추가로 제정하였다.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다른 지하자원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자산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sup>16)</sup>

#### 2. 카자흐스탄 자원산업의 투자장벽

카자흐스탄은 과거 사회주의체제 아래에서 대외 교역이 활발하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제조업 분야가 낙후된 상태이며 WTO에 가입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수출과 수입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독립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대외교역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함으로

12) LG 경제연구원, 고유가시대와 신자원민족주의, 이광우 선임연구원

13) 에너지 경제연구원,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진출 전략 연구(II), 2007. 12

14) [http://www.crisisgroup.org/library/documents/asia/central\\_asia/133\\_central\\_asia\\_s\\_energy\\_risks.pdf](http://www.crisisgroup.org/library/documents/asia/central_asia/133_central_asia_s_energy_risks.pdf)

15) Н.А. Назарбаев,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азахстана", 1999, p.121~133

16) 김상원,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과 외국인 투자",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8.4.30, p.25~50

서 군사안보적 차원에서 전략적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석유 및 가스 자원을 보유함으로써 그 경제적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피진출국으로서 여러 가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투자대상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기회요인과 마찬가지로 위협요인 또한 존재하고 있는데, 이 위협요인은 카자흐스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큰 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사회적 요인과 법적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1)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첫 번째로는 카자흐스탄의 내부 경제상황이 외부요인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기반이 약하여 수출의 대부분을 에너지자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 그리고 날씨 등의 통제할 수 없는 외부요인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에는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 에너지자원 가격이 급락할 경우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sup>17)</sup> 두 번째로는 불편한 사회시스템과 점점 증가하는 주요 도시의 높은 물가를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주요도시는 일본이나 유럽 수준의 높은 물가로 인하여 기업 운영 및 고정비용이 점점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후진국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업무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는 투자를 위한 각종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카자흐스탄 시장은 시장 경제 체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시장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가 미흡하다. 운송·통신·금융 등 주요 기간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sup>18)</sup>

(2) 법적요인

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카자흐스탄의 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의 영구적 토지이용권 취득을 불가하고 있고, 상법에서는 농지를 최대한 10년까지만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법에서는 시공(하청)업체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최대 49%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가스 관련 법에서는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지분을 최대 50%까지만 허용하고,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가스업체인 카즈므나이가즈와의 합작을 의무화를 시키고 있다. 특히 Local Content(지하자원 개발사업 투자 시 외국기업에게 자국의 공급자를 의무적으로 연결시켜야 하는 규정) 규정이 있어 외국인 자원개발투자에 제한을 두고 있다.<sup>19)</sup>

또한, 2007년 1월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외국투자자들에게 불리한 지하자원법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신자원민족주의적 정책을 가지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번 개정안은 1996년에 제정된 지하자원법을 개정한 것으로 2005년과 2006년 중국 등 외국 석유회사들의 카자흐스탄 자산 취득 증가로 자국 석유 자원에 대한 통제권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외국기업들이 신규 석유·가스 탐사·개발권을 확보할 경우, 2년간 이를 전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sup>20)</sup> 2007년 7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석유·가스 파이프라인, 철도, 전력망, 그리고 기타 인프라 시설 등 국가 전략적 자산을 외국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정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을 승인하였다. 이 법에 따라 카자흐스탄 국영석유기업 카즈므나이가즈의 부분적인 민영화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07년 9월 카자흐스탄 의회는 외국석유회사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의 지하자원법 개정을 승인하였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개발사업 중단 또는 기존 외국기업과의 계약까지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현재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 투자자들과의 카스피해 해상 프로젝트 관

17) 김경, “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2008.5.28  
 18) 코트라 국가정보(러시아), KOTRA, 2006  
 19) KOTRA, 알마티 무역관  
 20) 에너지 경제연구원,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진출 전략 연구(II), 2007. 12

런 협상을 중단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고위 에너지 관료는 현재 생산물분배계약보다 더 단순한 계약 형태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신자원민족주의적인 경향은 Kashagan 유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더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2007년 6월 Kashagan 유전 운영권자인 이탈리아 Eni 사가 생산시점 연기 및 투자비 증가 등에 따른 개발계획 수정안을 제출하자, 카자흐스탄 정부는 계약조건 강화, 운영권 박탈 경고, 환경규정 위반에 따른 작업 중지 등의 경고를 잇달아 취하였다. 또한, 2007년 8월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는 신자원민족주의가 선거의 핫이슈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총선에 참여한 카자흐스탄의 3개 주요 정당들은 자국내 외국석유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특히, 연합사회민주당(USDP)은 “세율을 높여야 할뿐 아니라, 카자흐스탄이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며 강경 노선을 주도하고 있다. 고유가 지속으로 외국기업들의 석유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석유회사들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자원통제 정책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sup>21)</sup>

#### IV. 한국의 카자흐스탄 자원산업 진출전략

##### 1. 한국의 카자흐스탄 투자동향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는 2007년 말 실제 투자기준으로 118건, 7억 1,700만 달러이며, 이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 등에 대한 투자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다. 현지법인 설립을 통해 카자흐스탄 건설업에 진출한 한국의 기업수는 2007년 말 31개, 2억 4000만 달러이다. 최근 2년간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한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동산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배관 및 냉난방설비, 보안시스템 등 건설장비를 공급하는 중소기업체의 투자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대부분은 아파트 및 주택 건설에 대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의 투자이다.<sup>22)</sup>

아래 <표-1>은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1>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투자 현황(2007년 말 기준)<sup>23)</sup>  
(단위: 천 달러)

구분	투자건수	투자금액
건설업	31	234,034
부동산 및 임대업	27	223,169
제조업	24	223,169
도매 및 소매업	20	59,551
기타	16	172,096
합계	118	716,976

이와 같은 민간기업들의 투자와는 달리 한국 정부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이윤창출을 목표로 각종 중장기 에너지 정책을 통해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자원외교 중심국으로서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 상반기에 제 4차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정부는

21) 중앙아시아 에너지산업 진출 전략 (2007), 한국석유공사

22) 심현정,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금융경색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08.5

2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 정부와의 다양한 MOU 체결을 통하여 민간기업의 진출기반을 조성하였으며, 공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신규개발사업에 진출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진출위험을 줄이기도 하였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대규모 석유자원 및 가스자원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의 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한국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진출하고 있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한국의 대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개발 참여 현황은 아래의 <표-2>와 같고, 석유자원 및 가스자원 개발 참여 현황은 아래의 <표-3>와 같다.

<표-2> 한국의 카자흐스탄 광물자원 개발 현황(2007년 말 기준)<sup>24)</sup>

개발사업	한국참여 기업	한국지분	추정 매장량	개발 단계
아약코잔 구리광	포넷	합작법인지분 60%	5만톤 (가채)	타당성 조사
카라타스 폴리브덴 동광	엔디코프	33.3%	-	개발 준비

<표-3> 한국의 카자흐스탄 석유·가스 개발 현황(2007년 말 기준)<sup>25)</sup>

개발광구	한국참여 기업	한국지분	추정 매장량
Zhambyl 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27%(탐사성공시 추가 23% 선매권), 한국컨소시엄 지분의 참여사별 비중: 한국석유공사 35%, SK 25%, LG상사 20%, 삼성물산 10%, 대성산업 5%, 대우조선해양 5%	16.6억 배럴
ADA유전	한국컨소시엄 (공동운영)	50%(한국석유공사 22.5%, LG상사 22.5%, 기타 5%)	1.7억 배럴
Egizkara 유전	LG상사	LG상사 50%	2억 배럴
South Karpovsk y 유전	한국컨소시엄	50%(한국석유공사 17.5%, GS홀딩스 12.5%, 경남기어 7.5%, 금호석유 5%, 현대중공업 5%, 카즈너지 2.5%)	4,600 만 톤
Sarkramas 유전	KS에너지(세하,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2.7억 배럴
West Bozoba 유전	KS에너지(세하,우리투자증권 등)	50%(세하 25%, 기타 25%)	1.6억 배럴
8광구 유전	LG상사, SK	100%(LG상사 50%, SK 50%)	2.5억 배럴

2. 진출전략

향후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한국이 카자흐스탄 지역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확실한 목표를

24) 이재영·신현준,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4.1  
 25) 이재영·신현준,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4.1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중장기적 계획이 수립 될 때 비로소 한국의 카자흐스탄 진출전략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이 추구해야 할 목표는 에너지자원의 확보,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 인식, 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교두보 구축 등으로 볼 수 있다.<sup>26)</sup>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전략은 국가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국 또한 에너지 절약과 해외유전 개발의 다각화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대체 유전지 확보가 절실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카자흐스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국가이다. 한국은 세계 제 5위의 에너지수입국으로서 원유 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해 왔다. 이처럼 중동에 대한 과중한 의존도는 한국 에너지 안보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어 왔고, 따라서 에너지 수입선의 다각화는 한국의 중요한 과제이다. 유가의 지속상승은 우리기업의 수입물가와 원유수입에 부담이 되는 등 비용상승의 문제를 유발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방법 모색, 대체원료 개발, 에너지 절약 등 전통적인 대응책들과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와 청정개발체제 개발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해외유전 개발에 있어서 석유매장이 불분명한 탐사광구의 비중이 전체 해외유전 개발사업의 84%를 차지하고 있고 개발과 생산광구는 각각 8%, 9%에 그치기 때문에 안정성 높은 포트폴리오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기업들의 탐사성공률이 서구 메이저기업의 1/3 수준인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조한 탐사 성공률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sup>27)</sup>

그리고 신자원민족주의로 어려워진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기업들만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한국정부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을 바탕으로 한 자원외교 강화, 국부펀드 등 각종 펀드를 통한 자금력 강화, 자원확보를 위한 주요 산유국과의 FTA 추진 등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자원외교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고, 자원개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기존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중국 석유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몇 년간의 평균치를 입찰가로 제시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미국이나 EU의 에너지기업들에 비해 경쟁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셋째, 카자흐스탄 지역에서는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재원조달, 그리고 경제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생산물 분배계약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자원개발을 위한 계약방식으로 생산물분배방식은 사업기간내 현지국의 조세법, 에너지 정책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어서 금융조달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총 투자비의 70~80% 이상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방 메이저에너지기업들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카자흐스탄 지역의 자원 개발사업 진출시 플랜트 사업과의 공동진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석유·가스전 개발사업 참여에 있어 가공공장, 정제공장 건설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 유리하며, 또한 통신 및 교통 인프라 구축, 산업개발 등과 연계하는 맞춤형 프로젝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카자흐스탄은 관료주의가 만연해서 정보입수나 인적교류 등 사업접촉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외교 및 고위 당직자간의 자원협력력을 통한 사업추진이 바람직하다. 최근 한국과 카자흐스탄과의 정상회담, 자원협력위원회 설치 등 협력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이러한 루트를 통해 사업진출 가능성을 고려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한국은 카자흐스탄과의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의 든든한 동반자인 고려인의 도움을 얻어야한다. 카자흐스탄의 고려인<sup>28)</sup>은 현지사정에 밝고 현지의 다양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민간기업과 정부가 현지 시장에 진출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카자흐스탄의 고려인들이 한국인과 같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민간 및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sup>29)</sup> 일곱 번째, 한국은 카자흐스탄이 WTO에 가입하여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도록 노력하고, 이와 함께 양국간 상설 통상협력 채널 구축을 위한

26) 이재영·박상남,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4.10

27) LG 경제연구원, 고유가시대와 신자원민족주의, 이광우 선임연구원

28) 카자흐스탄 공화국에는 12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9) 이재영·신현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2007.12.30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sup>30)</sup>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만으로는 자원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고, WTO가입으로 인한 투자환경 개선의 혜택은 모든 국가들이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은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경제문제를 다루는 국가주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정부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유라시아 지역협력체에의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유라시아 대륙의 유기적 연계성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고, 이에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수많은 다자기구들과 협력체들이 성립되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이 관심을 가져야 할 협력체는 상하이협력기구<sup>31)</sup>이다. SCO는 현재 지역적 다자 안보기구 역할에 머물지 않고 역내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를 추구하는 경제협력체로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에 대한 중장기 진출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SCO에 전략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카자흐스탄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아홉 번째, 패키지 진출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경제구조에서 완전히 상호보완적이다. 즉, 카자흐스탄은 한국이 필요로하는 에너지자원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제조업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제조업과 기술을 카자흐스탄에 전수하는 적극적 “Give and Take” 전략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와 함께 패키지전략도 병행하여야 한다.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개발할 산업인 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이 비교우위산업인 IT나 건설, 플랜트 등을 통한 진출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패키지형 진출전략이 효과적인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석유개발회사와 건설회사가 동반진출하여, 석유를 개발하고 개발된 석유를 정제할 수 있는 정유 플랜트를 건설해주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전망된다.<sup>32)</sup>

## V. 결 론

한국은 국토면적이 좁고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수출주도적인 통상정책을 추진하여 왔고, 또 지금도 이러한 수출주도적 통상정책은 한국대외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과거 한국의 대외정책은 내수시장을 개방하는 수동적인 차원에서의 무역자유화와 생산기지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은 이미 전략적인 산업들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내수시장의 충분한 개방을 통하여 세계무역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sup>33)</sup> 대외무역지향적인 한국의 경제가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가들뿐만 아니라 투자잠재력이 높아지고 있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투자를 증대시켜야한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 중에서 특히 카자흐스탄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현재 중앙아시아 석유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며, 이 지역에서의 성공은 다른 카스피해 인근 국가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카자흐스탄에서의 석유·가스 개발 사업은 정제시설, 수송망 구축 등 관련 인프라 사업도 뒷받침 되어야 하는 사업이 다수이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석유산업의 특성은 대형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이에 따라 석유개발 관련 산업의 동반 부흥이 예상된다.

하지만, 카자흐스탄 시장의 정보 유통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점, 물류 인프라가 취약한 점들은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Kashagan 유전에서 드러난 카자흐스탄 정부의 신자원민족주의적 경향, 2007년 1월의 지하자원법 개정안 발효 등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대한 투자거래는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34)</sup> 또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7년 8월 21일부로 세관 통관절차를 특별히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sup>35)</sup>

30)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31) 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32) 이재영·신현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2007.12.30

33) 이재영·신현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2007.12.30

기존에는 제출의무가 없었던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면장 원본을 제시하도록 함에 따라 통관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통관절차 강화조치는 불법적인 통관을 제재하고자 하는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카자흐스탄과의 무역거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들의 무역진출시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에너지 부족현상으로 인해 에너지 확보전략이 국가의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현 시점<sup>36)</sup>에서, 신자원민족주의적 경향으로 어려워진 카자흐스탄 유전 개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들만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경제발전 경험 전수 등 자원외교 강화, 산유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건설업체와의 동반진출, 국부펀드 등 각종 펀드를 통한 자금력 강화, 자원확보를 위한 주요 산유국과의 FTA 추진 등의 다각적인 접근도 필요하다.<sup>37)</sup> 이에 우리나라는 정부차원의 자원외교가 선행될 필요성이 있고, 자원개발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기존 추진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편 러시아·중국 석유기업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고려인 기업인들과 투자협력을 우선 추진하여 고려인을 통한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의 비교우위산업인 IT나 건설, 플랜트 등을 통한 진출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패키지형 진출전략 또한 효과적일 것이라 전망된다.

이 연구자료는 최근 대두되는 신자원민족주의적 정책을 취하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투자장벽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민간기업들과 한국정부가 카자흐스탄의 자원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료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이 많았고, 본인의 얕은 지식으로 인해 효과적인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 특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정책이나 법, 제도에 대한 최신자료를 수집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연구의 기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자료가 획득될 경우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34) 에너지 경제연구원, 중앙아시아 에너지 자원 개발진출 전략 연구(II), 2007. 12

35) Emst & Young, "Kazakhstan A Business and Investment Guide, p. 13~33, 2005

36) Reid W. Click and Fobert J. Weiner, "Resource Nationalism Meets the Marke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37) Alex Gorbansky, "Addressing the Challenge Posed by Resource Nationalism: Strategies for Success", PDAC, march 5, 2007

참고문헌

H.A. Назарбаев.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Казахстана”, 1999, p.121~133

Alex Gorbansky, "Addressing the Challenge Posed by Resource Nationalism: Strategies for Success", PDAC, march 5, 2007

Energy Intelligence, "The Multiple Faces of Resources Nationalism",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5 February 2007

Emst & Young, "Kazakhstan A Business and Investment Guide, p. 13~33, 2005

International Crisis Group, "Central Asia's Energy Risks", Asia Report N.133, 24 May 2007

Lord's Cricket Ground, "The Rise of Resource Nationalism", 1 May 2007

Pete Stark, "The Winds of Change: Resource Nationalism Shifts the Balance of Power to National Oil Companies", JPT Online, January 2007

Reid W. Click and Fobert J. Weiner, "Resource Nationalism Meets the Marke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The Arab Petroleum Research Center, "The New Oil Nationalism", Arab Oil & Gas, 16 April 2007

국세청, “카자흐스탄 진출기업 세무안내”, 2007

김경, “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학회, 2008.5.28

김상원, “카자흐스탄의 에너지개발과 외국인 투자”, 국제지역연구 제12권 제1호, 2008.4. 30, p.25~50

김선영, “Country Profile 카자흐스탄”, 세계지역연구센터, 2005.12.19

김중관,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산업과 경제정책”, 중동연구, 2006, p.175~198

김홍중·권윤·박복영·정성춘·이성봉, “총괄보고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박상남·강명구, “주요국의 대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KIEP, 2007

서정규, “가스수출국포럼 동향 및 가스 카르텔화 가능성”, KEEI ISSUE PAPER, 에너지경제연구원, Vol.1, No.5, 2007.8.16

심현정, “카자흐스탄 은행산업의 금융경색 및 시사점”, 한국수출입은행, 2008.5

에너지경제연구원, “중양아시아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 연구(II)”, 2007.12

외교통상부, “카자흐스탄 지하자원이용법 개정동향”, 2007.10

이광우, “고유가시대와 신자원민족주의”, LG 경제 연구원

이달석, “신자원민족주의의 현상과 영향”, KEEI ISSUE PAPER, 에너지경제연구원, Vol.6, No.6, 2007.8.31

이성규, “중양아시아 및 카스피해지역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전략”,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이성규, “중양아시아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 진출 전략(II)”, 한국석유공사, 2007.12.26

이재영, “중양아시아의 경제와 협력방안”, KIEP, 2007.2.3

이재영·박상남, “중양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4.10

이재영·신현준, “중양아시아 자원개발,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8.4.1

이재영·신현준, “중양아시아 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이재영·신현준,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양아시아, 2007.12.30

이홍섭, “카자흐스탄의 대외정책”, 2007.12.15

KOTRA 국가정보(카자흐스탄), 2006

한국수출입은행,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현황”, 2007

허주녕, “카자흐스탄 경제 개황”, 한국농촌경제연구원